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對中 관세 90일 유예 서명. 베센트 재무장관은 무역작자 개선 강조
 - 차기 연준 의장 후보, 보우먼 부의장 등 현직 고위 인사 등도 포함
 - 중국 베이징市, 부동산 규제 완화 지속. 시장 회복에는 오랜 시간 소요 예상
 -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종결 준비는 부재. 對러시아 제재 지속될 필요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對中 관세 90일 유예 확정, 7월 소비자물가 발표 경계감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7월 소비자물가의 상승 가능성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관세정책 관련 우려 등으로 0.1%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서명 등으로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2%, 0.3%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7월 소비자물가 발표 앞두고 관망세 등으로 강보합
독일은 지난 주 미국 장기채 입찰에서의 수요 부진을 반영하며 1bp 상승
- ※ 뉴욕 1M NDF 증가 1388.6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91.1원, 0.22% 상승). 한국 CDS 약보합

		8/11일	8/8일	전일대비			8/11일	8/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373.5	6,389.5	-0.25%	국채 금리 10y	미국	4.28%	4.28%	+0bp
	유럽	546.76	547.08	-0.06%		독일	2.70%	2.69%	+1bp
	중국	3,647.5	3,635.1	+0.34%		영국	4.57%	4.60%	-4bp
	일본	휴장	41,820	-	CDS 5y	한국	22bp	22bp	-0bp
	한국	3,206.8	3,210.0	-0.10%		중국	45bp	45bp	+0bp
	달러지수	98.51	98.18	+0.33%	위험 지표	EMBI+	-	344	-
환율	유로화	1.1615	1.1641	-0.22%		VIX	16.25	15.15	+7.26%
	엔화	148.15	147.74	-0.28%		WTI유	63.96	63.88	+0.13%
	위안화	7.1888	7.1802	-0.12%	원자재	구리	444.0	447.2	-0.70%
	원화	1,388.0	1,389.6	+0.12%		금	3,342.4	3,397.8	-1.6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對中 관세 90일 유예 서명. 베센트 재무장관은 무역적자 개선 강조

- C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對中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이에 따라 11일 자정에 만료될 예정이었던美中 간 관세 유예 조치는 11월까지 이어질 전망. 양국은 7월 말 이에 대한 잠정 합의를 이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마침내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
-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금에 관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국제 금 가격은 2% 이상 하락. 또한 중국이 미국산 콩 수입을 4배 늘리기를 원한다고 밝혔는데, 이후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대두 선물 가격은 장중 2% 이상 급등
- 또한 로이터와 FT 등에 따르면, Nvidia와 AMD 등 AI 칩 생산 업체들은 중국에 대한 수출 허가를 얻기 위해 수출 규모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합의. 이에 더해 Nvidia의 최신 AI 칩 ‘블랙웰’의 성능을 낮춘 버전의 중국 판매 허용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발언
- 한편, 베센트 재무장관은 관세정책의 목적이 무역 불균형 해소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관세 역시 사라질 것이라고 발언. 이는 무역적자 개선 여부에 따라 관세의 인하 혹은 철폐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일련의 무역협상은 10월까지 대체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強달러는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정책이며, 엔화 약세는 일본은행이 적절하게 통화정책을 추진하면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 차기 연준 의장은 시장 신뢰 확보, 복잡한 경제 데이터에 대한 올바른 분석력, 연준 조직에 대한 운영 능력, 미래 예측력 등을 갖춰야 한다고 발언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차기 연준 의장 후보, 보우먼 부의장 등 현직 고위 인사 등도 포함

- 블룸버그는 차기 연준 의장 후보에 보우먼 및 제퍼슨 부의장, 달러스 연은 로건 총재 등이 포함되었다고 보도. 베센트 재무장관은 기존에 알려진 후보들과 이번에 새로 포함된 후보들을 면접하고 최종 면담 후보로 알려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1명을 최종 선택할 전망

■ Citigroup, S&P500지수의 연말 목표치 상향. BofA는 미국채 금리 전망을 하향

○ Citigroup의 스캇 크로너트 애널리스트는 연말 S&P500지수의 목표치를 6300에서 6600으로 상향하고, 기업의 이익 개선 전망을 반영했다고 설명. 관세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부연. BofA의 마크 카바나 스트래티지스트는 연준의 독립성 약화 가능성, 고용 부진 등을 고려하여 미국 2년물 및 10년물 금리의 연말 전망치를 모두 하향(각각 3.75%→3.50%, 4.50%→4.25%)

■ 블룸버그 설문조사, ECB의 다음 금리인하 예상 시기는 12월

○ 이코노미스트 대상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ECB의 다음 금리인하 시기는 12월이 될 것으로 예상. 이는 기존의 9월에서 다소 지연된 결과. 아울러 12월 금리인하 이후 추가 인하는 없을 것으로 전망

■ 중국 베이징市, 부동산 규제 완화 지속. 시장 회복에는 오랜 시간 소요 예상

○ 중국의 주요 언론은 베이징市 당국이 8일 일정 기준 이상의 사회보험 지불, 소득세 납부 등을 완료한 거주자는 5차 순환도로 밖에서 상업용 주택의 무제한 구입을 허용했다고 보도. 이는 수요 회복을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조치.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경기 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평가

■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종결 준비는 부재. 對러시아 제재 지속될 필요

○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중단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이에 동맹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 한편, 13일에 독일 주최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및 유럽 정상들은 화상 회의를 진행할 예정. 이를 통해 독일 메르츠 총리와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과 안전보장, 러시아 압박 필요성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 15일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며 우려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8/12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7월 소비자물가, 미국 리치몬드 연은 및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발언

○ 영국 4~6월 실업률, 호주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정부의 시장경제 통제 시도, 국가자본주의化 우려가 심화 - WSI

(The U.S. Marches Toward State Capitalism With American Characteristics)

- 미국은 이제까지 자유시장 중심의 자본주의를 추구했으나, 트럼프 집권 이후 정부의 시장 개입이 강화되고 변화의 징후도 발생.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식 사회주의와 같이 미국적 특색의 '국가자본주의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
- 과거에도 당국은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시장에 개입했으나, 이는 일시적 방편에 불과. 지속적 개입에 의한 국가자본주의는 정치적 인맥에 의한 정실주의, 비효율성 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 중국식 사회주의가 정부의 통제강화로 오히려 성장 둔화, 반시장적 부작용 등을 초래했다는 점도 주의가 요구

■ 미국 채권시장의 변화, 주가 상승 이어지는 증시에 경고 신호 발신 - Reuters

(Debt market jitters signal caution for high-flying stocks)

- 최근 회사채 스프레드는 27년 전의 최저치에 근접하며 강력한 경제성장 전망을 의미. 아울러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 가격은 경제 골디락스 시나리오를 반영하고(Russell Investments), 미국 주요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
- 하지만, 노동시장 약화 등 경제성장 둔화 징후로 선물시장에서 iShares 및 정크본드 지수의 하락 베팅 증가, 기관의 회사채 보유비중 축소 등 기존에 회사채 가격 상승을 예상했던 투자 기조에서 변화가 감지. 또한 '18,'22,'23년 주가 급락 시기에 채권 중심 상장지수펀드(ETF)가 먼저 하락한 점을 참고한다면, 최근의 신용시장 변화가 큰 폭 주가 조정의 전조 현상일 가능성

■ 미국 주택가격 하락세, 고금리·관세시 편향 투자 등으로 장기화 예상 - The Economist

(America's housing market is shuddering)

- 상반기에 이어졌던 다수 도시에서의 주택가격 하락은 최근에도 지속. 지역별로 팬데믹 여파와 기후변화로 인한 보험료 상승, 이민 단속 등이 관련 현상에 일조했지만, 다음의 이유들이 주택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 첫째,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높은 수준의 금리가 주택 매매와 신규 건설에 걸림돌로 작용
- 둘째,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주택시장 회복 기대를 저해. 셋째, AI 등 빅테크 자본 지출 급증과 해당 업종의 경제 활성화 기여 증가로 주택산업의 중요도 감소. 이에 금리인하가 시행되어도 주택경기 회복은 제한적일 소지

■ 미국 달러화 패권, 여전히 건재하지만 트럼프 정책이 위상을 훼손 - 블룸버그

(The dollar still rules, but US policy is making it less special)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과 예측 불가능한 행보, 재정악화 등으로 달러화의 기축 통화 지위에 대한 신뢰가 약화. 현실적으로 달러화를 대체할 단일 통화는 없지만, 향후 다른 통화의 역할이 커지는 다극 통화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은 점증
- 달러화의 지배력이 약화되면 미국 채권에 대한 해외 수요가 줄어들어 저금리의 혜택이 감소할 가능성. 구체적으로 은행 조달 비용과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여 소비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차입 비용도 증가하여 정부의 재정 여력은 축소
- 달러화 가치와 사용이 감소하면 미군의 해외 주둔비용 상승, 경제 제재 효력 약화 등으로 지정학적 영향력도 약화. 베센트 장관은 달러화 회의론을 부정하지만, 다극 통화 체제에서 경쟁은 심화될 것이며, 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파장 초래할 소지

■ 미국 고용 둔화, 노동시장의 수요가 아닌 공급 감소가 원인일 가능성 - Financial Times

(Job creation: supply vs demand)

■ 미국 기업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관세로 인한 실적 악화주가 하락 방어가 목적 - WSJ

(American Companies Are Buying Their Own Stocks at a Record Pace)

■ 미국 금융권, 은행 지급준비금 잔액 감소에 따른 9월 유동성 위기 가능성 주목 - 블룸버그

(Wall Street Is Looking Ahead to September Liquidity Pinchpoints)

■ 미국 증시, 새로운 세대의 하락 시 매수 전략은 예상보다 강력한 완충 여력 제공 - WSJ

(A New Generation of 'Buy the Dip' Investors Is Propping Up the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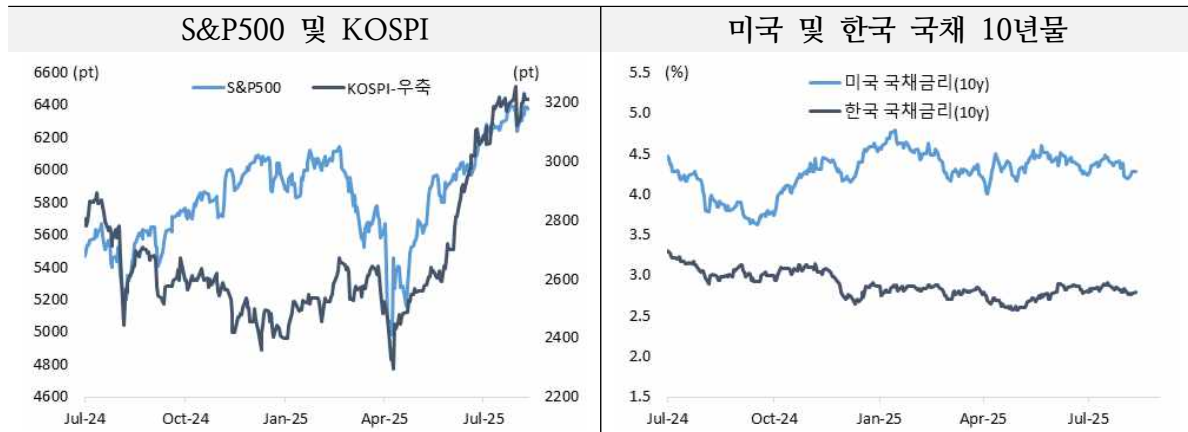
■ EU, 단기적 측면의 안정 위해 트럼프 구상에 자발적으로 종속 - Financial Times

(Europe's 'happy vassal' compl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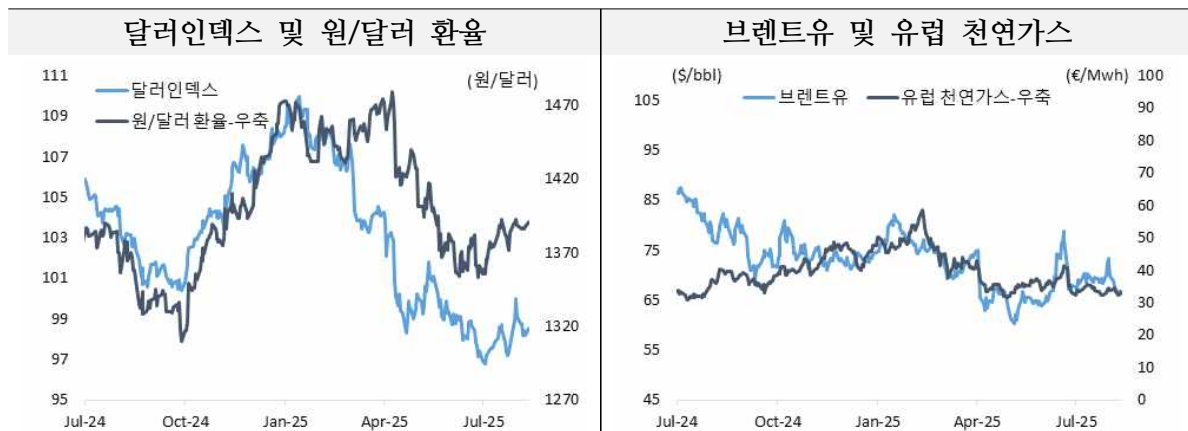
■ 일본의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 시 정책 마비 등으로 경제성장 저해할 우려 - Reuters

(Japan's deepening political woes cloud budget, rate hike tim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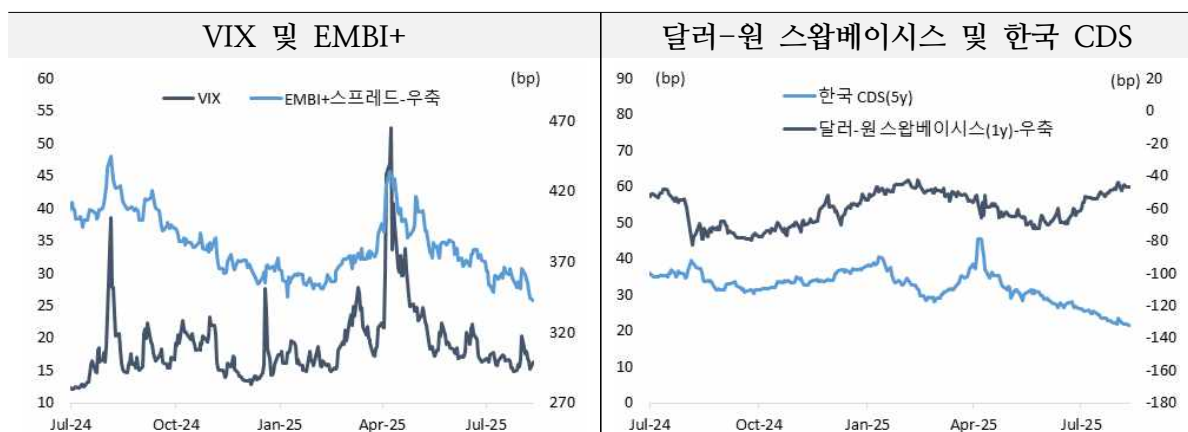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